현대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 담은 길극〈오공〉

최근, 국가 예술기금 지원을 받은 길극(吉剧)〈오공〉(悟空)이 장춘인민예술극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작품은 길림성을 배경으로 길극 특유의 매력을 살렸고 기존 서유기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 현대 청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무대에 올렸다. 지역 특색이 담긴 노래와 연기를 통해 리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그들의 노력을 담아냈다.

연극은 익살스러운 대사로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일상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극중극' 형식의 이 작품은 연극을 전공한 네명의 졸업생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손오공 역의 류대금은 할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관광마을에서 원숭이 분장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다 련습에 자주 늦어지고 컨디션이 불규칙해지면서 예술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당승' 진강류와 갈등을 겪게 된다.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리해하게 된 네 사람은 초심을 잊지 않고 극단 오디션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한다.

감독 량우는 "이 작품은 대중 친화적인 길극의 특징을 살리고 거기에 현대적인 연출 기법을 더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유기의 유명한 장면을 실제 생활과 련결시켜 오늘날 젊은이들의 방황과 성장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극단과의 첫 작업이였지만 배우들의 열정과 환상적인 호흡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진강류 역을 맡은 배우 염동은 자신이 맡은 역은 전통 연극의 맥을 지키는 바르고 신념이 강한 청년이라면서 "이 작품은 길극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연극과 무용극 등 다양한 장르의 표현 방식을 추가해 극의 본질을 살리면서 현대 관객의 취향에 맞췄다."고 소개했다. 극중 졸업생들의 방황과 선택은 그에게도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연극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극〈오공〉은 길림성희곡극원 길극단의 창작 작품이다. 극단 책임자 장사광은 "이번 작품은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도전인 동시에 젊은 희극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출연진이 젊은이들로 구성되였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연기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박물원, 항일련군 유물 14점 추가 전시

최근 '동북항일련군 유적지 출토 문물 특별전'에 선정된 귀중한 문물중의 14점이 길림성근현대사전람에 추가 전시되였다.

'특별전'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북경 중국공산당력사전람관에서 열렸다. 길림성박물원에서 '특별전'에 출품한 전시품들은 력사적 의미가 크고 항일련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올해 2월말 전시가 종료되면서 출품했던 유물들이 모두 길림성박물원으로 돌아왔다. 박물원은 엄격한 심사와 연구를 거쳐 그중 14점을 선별해 길림성근현대사전람에 새롭게 배치했다.

길림성박물원 력사부 부주임 손아정은 이번에 추가된 유물들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14점의 유물은 종류가 다양하며 항일련군의 실제 전투와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유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기류에는 항일련군이 빼앗은 일본제 38식 기병총과 직접 사용했던 독일제 소총, 권총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병기 제작을 위한 공구류에는 망치, 집게, 철제 톱날 등이 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물건류에는 민간 의사가 항일련군 치료에 사용한 침술 바늘과 인쇄 및 식자 도구(排字工具) 등이 포함된다. 이 유물들에는 항일련군이 렬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감히 싸우며 신념을 지켜나간 력사적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길림성박물원은 관람객들이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리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길림성박물원 공공봉사부 부주임 곽애니는 "전시품에 담긴 길림의 력사와 영웅 이야기를 깊이 발굴하고 해설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관람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길림일보

중앙가극원 예술가와 함께하는 무대, 청소년 참가자 모집

최근, 길림성음악당은 청소년들의 예술 실습 경험을 넓혀주고 그들에게 전문 공연 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오는 5월 30일 특별 예술공연 '시·노래와 함께'(诗·歌与共)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내에서 랑송과 성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중이다.

이번 공연은 고전 시가(诗词)를 노래하고 랑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술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공익적 취지로 기획되였다. 모집 절차를 간소화해 예술에 열정을 가진 청소년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전문 공연장을 방문해 고전 문화와 무대예술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연 모집은 크게 '오프닝 합창 랑송'과 '예술가 동행 무대' 두 분야로 나뉜다. 오프닝 합창 랑송 곡은〈소아·록명〉(小雅·鹿鸣)이며 20명 이내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특별 예술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 기간중 전문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발성 기술과 무대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길림성음악당 주무대에서 리허설과 본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가 동행 무대'는〈청옥안·원석(青玉案·元夕)〉,〈만강홍(满江红)〉등 여러 고전 시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 인원은 10명 이내로 선발하며 중앙가극원 예술가들과 함께 무대에 설 기회를 얻는다. 련습과 공연 과정에서 전문적인 예술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개인의 예술 기량과 무대 표현력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다. 또한 무대 공연의 준비부터 실제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공식 공연 사진과 길림성음악당 사회실천 증서가 주어진다. 특히 '예술가 동행 무대' 부문 참가자에게는 길림성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명예증서가 추가로 수여된다.

본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공연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주최측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 :15948797888

/ 길림일보

'채련뉴스' 앱, 음악회 입장권 10장 무료 증정

4월 17일 오후 7시, 길림성음악당에서 '국악의 초심' 리박선(李博禅) 작품 특별 음악회가 열린다. 관현악에 담긴 동양의 시적 정취와 순수한 초심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길림일보》채련뉴스 앱(彩练新闻客户端)은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공연 입장권 10장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현대음악계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 작곡가 리박선의 작품은 언제나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의 모든 작품의 선률에는 국악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깃들어있다.

이번 전용 음악회는 그의 대표작 6곡을 엄선했다. 저명한 지휘자 손붕이 지휘를 맡고 길림성교향악단이 연주하며 여러 국악 거장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관객들은 국악과 교향악이 어우러진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채련뉴스 앱을 다운로드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된다.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200점이 쌓이면 포인트 몰에서 공연 입장권을 한장 교환할 수 있다. 회원 한명당 한번에 한장(최대 두장까지)을 바꿀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교환이 완료되면 백그라운드에서 포인트 교환에 성공한 독자의 정보를 집계해 공연 주최측에 전달한다. 공연 당일에는 직원이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한 뒤 입장권을 나눠줄 예정이다. 당첨된 독자는《길림일보》문화뉴스부를 직접 방문해 입장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악의 품격과 교향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고 젊은 음악가들이 시대의 새로운 소리를 연주하는 이번 음악회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4월 17일, 길림성음악당에서 리박선의 선률에 귀 기울이며 중국 음악의 깊이를 느끼고 국악의 초심을 지켜가길 바란다.

참고 사항 : 키 1.2메터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으며 1.2메터 이상 어린이는 입장권 소지 시 입장이 가능하다.

/ 길림일보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제7기 조선어 무료 강좌 개강

일전,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서 주최한 제7기 조선어 무료 강좌가 공식 개강되였다.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강좌에 다양한 년령과 직업의 조선어 학습자들이 참여했다. 초보자부터 수준별로 구성해 조선어 기초발음, 핵심어휘, 기초문법, 회화표현 등 주요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도왔다.

개강식에서 한 젊은 수강생은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족 문화를 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또 다른 수강생은 "퇴직후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조선어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용적인 학습을 원하는 직장인부터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어르신들까지, 강좌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은 앞으로도 조선어 무료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 흑룡강신문

主管 / 主办：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吉林朝鲜文报社 印刷：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长春市绿园区普阳街2366号 邮编：130011 传真：87627100 广告许可证：2200004000046 定价：180元 / 年
编务办：87619812 全媒体中心：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87627091 延边记者站：（0433）2518860 吉林记者站：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13604447151 白山记者站：15143355283 首尔分社：+82（02）7868089